



백 선교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형적인 엿업 범죄에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백선(Setup)범죄는 연행자의 기만에 걸리기 마약류 등을 넣은 뒤 현지 경찰이 신고해 검을 주면서 돈을 뜯는 범죄로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자국민의 총기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소지는 불법임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윤 총화장과 백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번 단탄서를 통해 “백 선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금된 ‘엿업’(Setup) 범죄가 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백 선교사 석방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홍준태 기자

“한국선교, ‘연합’을”… KWMA 2018 세계선교대회 개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선교전략회의(NCOWE 7)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 세계 각 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1,625명의 선교사가 참여해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했다.

‘함께, 그 날까지’(마 24:14)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4차 산업시대의 선교적각을 모색하고 저녁집회를 통해 영역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를 위해 신동우 목사(KWMA 이사장)와 신화석 목사(KWMA 대표회장)는 해외 현장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각각 전했다.

이번 대회는 침체된 한국선교의 현재를 점검하고 영역과 권역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여러 분야로 나뉘었지만 ‘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처럼 화두는 단연 ‘연합’이었다.

한국세계선교연합회(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이번 선교대회에 대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국교회와 큰 연합의 특징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며 “신 유목민 시대라고 할 만큼 디아스포라 현상과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활용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이번 선교대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주제강의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선교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와 선교사들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야 하는지,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현재의 선교환경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대책방안을 세우며 디아스포라의 현상과 선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현재 선교 상황을 되짚었다.

선교전략회의 차원에서도 선교연합을 위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전방개척선교를 비롯해 목양적 선교, 플랫폼 선교, 선교 거버넌스, NGO를 활용한 선교, 현지교회 동원, 비지니스(BAM 선교), 리더십, 여성 선교사, 통일, 난민, 디아스포라, 문화예술, 영상, 재정, 행정, IT(4차 산업), 멤버케어, 은퇴 등의 영역별 선교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으며 정보를 얻었다.

권역별로는 동서남·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중국, 대만·홍콩, 몽골, 일본, 북한, 한국, 중동, 동·서유럽, 동남·서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북·중·남미, 카리브해, 호주·남태평양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해당 지역 선교사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프로그램으로는 Key Note Speech, 각 주제발표, 영역별전략회의, 권역별전략회의, 선교대회가 있었다. 18일 개회예배설교는 신동우 목사(KWMA 이사장, 산돌중앙교회 담임), ‘Key Note Speech’는 조용중 선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적 도전’은 서동혁 교수(단국대 디스플레이공학과 교수), 저녁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YWAM 설립자),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19일 새벽예배설교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담임), 저녁에는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원로), 정만용 목사(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20일 새벽예배설교는 윤원로 선교사(서부아프리카 선교사),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하형록 목사(Timhass 회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새벽예배설교는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 폐회예배설교는 신화석 목사(KWMA 대표회장, 안디옥 성결교회 담임)가 맡았다.

영역별 강의에서 ‘파트너십과 선교현지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이승일 선교사(바울선교회,

필리핀 사역)는 “결국 어느 특정한 민족만 선교사로 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확신시켜야 된다”며 “선교사들이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가르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력



1.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선교전략회의(NCOWE 7)에 모인 선교사들.

해 복음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앞서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한국교회 선교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선교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세계선교대회는 1991년부터 4년마다 개

최되어 한국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교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이번 대회는 종교교과적 협력과 연합사역을 추진해, 국제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교적 교회운동을 통한 한국 교회 부흥의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홍은혜 기자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열려

한국군종목사단(단장 김성일 목사)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회장 정경두 함창의장, KMCF)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역대하 7:14)를 주제로 ‘제28회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를 개최했다.

군인교회 및 군선교유관기관이 후원한 이 대회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장병 15,0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牧사는 “오직 성령으로”(행 19:1~7)를 주제로한 성회 개막설교에서 “국군장병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꿈이요 미래”라 밝히고, “여러분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첫째 날 21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부천교회 박성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둘째 날 22일은 한국군종목사단장 김성일 목사,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박선희 목사,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마지막 날인 23일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대회 기간 동안에 해리타지 CCM 찬양팀과 컴패션밴드의 콘서트(대표 서정인 목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양의 아름다운 무대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뜨겁게 진행되었다.



‘제28회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

홍은혜 기자

한장총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 성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 이하 한장총)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가 6월 22일 치유하는 교회(강서구 화곡동)에서 한국장로교여성지도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한장총 금년회기 주제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행10:33)’이란 주제로 개최한 여성대회는 1부 예배에서 공동기도문으로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가정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다.

대회장인 김순미 장로는 대회사를 통

하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된 후, 마치 평화가 다 이루어진 양 들떠 있는 이 때에 우리 장로교여성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역사적 중대한 때에 여성들이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채영남 목사(한장총 직전대표회장)는 전도서 4:9~12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설교에서 채

목사는 “마귀는 분열을 획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협력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임에도 오히려 단합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큰 장로교단들이 연합하지 못하여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이기주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한국장로교 여성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인 유종현 목사는 격

려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고 밝히고, “한장총에서는 여교역자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여성들의 역할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성회복을 통한 재부흥의 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여성대회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배 후 제2부 특강 시간에는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사회현상과 교회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며, 대회장 김순미 장로가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박용국 기자

예장합동 총회, ‘이슬람대책 아카데미’ 개최

이슬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슬람대책 아카데미”가 7월 5일과 6일 총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린다.

지난 해 이슬람대책아카데미가 국내 이슬람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슬람 관련 다양한 주제에 걸쳐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 해 열리는 제2회 이슬람대책아카데미는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과 더불어 무슬림 전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

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아즈베리(Azberry) 목사를 강사로 초청할 예정이다.

아즈베리 목사는 이란인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이었으나 영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현재 웨일즈의 노르 교회(Noor Christian Fellowship)를 개척하여 약200명의 이슬람 개종자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 영국스완지 대학교(University of Swansea)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 하였고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Swansea Bible College)에서 공부하였으며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와 런던 캔징턴 신학교

(Kensington Temple's Bible Institute of London)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번 강의내용은 7월 5일에 유해석 선교사(FIM국제선교회 대표)의 “기독교인은 이슬람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김신숙 선교사의 “이슬람의 현실과 선교적 대안” 그리고 아즈베리 목사의 “이슬람의 여성관”, “알라와 하나님”,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7월 6일에는 남경우 선교사의 “이슬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혜훈 국회의원의 “한국이슬람의 현실과 대안”을 강의할 예

정이다.

본 이슬람아카데미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주최하며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비용은 숙식을 하지 않는 일반 참가자는 2만원이며 자료집과 식사가 제공된다.

숙박 이용자들은 일인당 5만원으로서 자료집과 2인1실 숙박(조식포함)이 제공되며 식사가 제공된다. 숙박이용자는 6월 26일에 등록 및 입금이 마감되며 자세한 문의는 총회교육출판국(02 559 5632)으로 문의가능하다.

홍은혜 기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전용사들에게 꽃바달을 전달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대표구좌	구독문의 070-4352-2480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외입양이 인권침해? 정확한 통계 제시해라”

예장통합총회 인권위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에 전국입양가족연대 목회자협 반박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영 목사)가 최근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본 가운데,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목회자협의회의(이하 협의회)가 이에 대해 “일부 비극적인 모습만을 전체인양 비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 관심을 모았다.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는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2018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고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해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이 선언문에 언급된 바, 한국전쟁 고아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고,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혈연중심의 유교사상, 국가로부터 방치된 국민들의 아만적인 삶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언문에서는 이런 고민 없이 무조건 해외입양에 대한 반성적 성찰 만을 언급한다”면서 “가기에 입양을 단지 사회적 미덕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입양 가족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선언문 중, 수십년간 성공한 해외입양인 이야기로 덮어 온 현실이라는 문장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언문에는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

도는 있지만 사랑으로 양육되는 가정의 소중함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해외입양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 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해외입양인의 시각으로만 말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독교적 인권 개념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한 세속적이고 유훈론적인 인권 개념에 입각하여 입양을 바라보는 소수 목회자의 시각”이라 비판했다.

때문에 협의회는 “선언문이 해외입양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입양당사자와 미래에 해외입양을 통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마저 폄훼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외입양을 선진국 가정에 아동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 또는 아동송출이라 정의하는 김 모 목사님과 같은 이들은 해외입양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지극히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라 지적하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인 통합교단에서 이런 극소수의 의견을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의 선언문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는 해외입양에 대한 일부 악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은 선언문을 작성, 대한민국교회와 성도들이 입양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부 종교인이 주장하는 ‘가부장제-서구우월주의-기독교 자신 전통이 해외입양지지’ 라는 논리는 지난 수십년간 사회주의 페미니즘 계열에서 입양을 폄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추어 일반화 시키는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입양계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시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에 감사하는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내리 기자

“해외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모두 하나님 형상”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의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돌아봤다. 또 ‘2018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2018년 오늘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픔과 가려진 진실의 일면에 서 있음을 고백한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에 대해 반성적 성찰 없이 사회적 미덕으로만 인식해온 우리의 과오와 그 과정 중에 아픔을 겪은 입양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모든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음 받았기에 누구도 출생과 형편의 이유로 고통을 받거나 차별을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음을 믿는 신앙 고백에 더하여 우리는 해외입양과 입양당사자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삼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다. 입양아동이 겪어왔던 “그 나라”에서의 차별과 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이 나라”에서 직면해야했던 아픔을 수십 년간 성공한 입양아 이야기로 덮어온 현실에 대해 교회는 반성하지 않았다. 한국교회와 해외입양 문제에 있어 무지와 관철자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회개한다. 아울러 입양삼자(Adoption Triad) 모두가 경험하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이제 우리는 입양삼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훼손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과 저항에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다. 사회의 미성숙과 개인의 죄성들이 거리낌없이 휘두르는 배제의 논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설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는 사설기관들이 송출국의 아동을 공급하고, 수령국의 개인 및 기관들이 입양절차 전반에서 양부모를 대리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양부모 자격 부실심사, 입양아동

에 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아동의 송출과 수령의 편의성에 집중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나아가 해외입양이 필요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요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고, 이후 빈곤, 실종, 유기 등으로 홀로된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입양 송출국의 불명예를 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제도적, 법적 한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이 사회가 함께 기르고 책임져야할 아동의 삶과 친생부모의 고통을 통해 해외송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가해버린 국가의 책무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해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

1993년 5월 29일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제17차 회기에서 서명한 상기협약은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 최우선 원칙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비정상적 혹은 준비되지 않은 해외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외입양을 수용할 뿐, 선진국 가정에 아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아동송출은 엄격히 금지되어야함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서명한 하였을 뿐 국내 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담보할 비준절차는 현재까지도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비준지연을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저버린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 무 위반으로 인식한다. 아동의 인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마땅히 보호해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친생부모의 어려움 환경을 해결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오늘 해외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인권의 존엄함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제도를 비판하며, 이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입양삼자는 물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선한 동역자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말과 문서가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돌아갈 교회와 노회 및 총회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선언은 곧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의 실천이다.

“참된 진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발표에
대한 전국입양가족연대 목회자협의회회의 입장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은 선언문에 언급된 바, 한국전쟁 고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혈연중심의 유교사상, 국가로부터 방치된 국민들의 아만적인 삶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언문에서는 이런 고민 없이 무조건 해외입양에 대한 반성적 성찰 만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입양을 단지 사회적 미덕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입양가족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해사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거리에서 굶어죽거나 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이 고아들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내입양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그들 중 일부는 해외입양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교육의 기회를 얻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은 사회적 미덕일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언문 중, 수십년간 성공한 해외입양인 이야기로 덮어 온 현실이라는 문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도는 있지만 사랑으로 양육되는 가정의 소중함은 외면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이후 입양에 대하여 무지와 관찰자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자성의 언급을 읽으며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입양을 반대 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아이들이 해외입양의 기회마저 막히게 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비극적인 모습만을 전체인양 비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꾸준히 베풀어 오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족했던 일부 모습을 마치 모두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까지 한거번에 비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삶 안에 부모와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애는 해외입양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입양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 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95%는 혈연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해외입양인의 시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독교적 인권 개념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한 세속적이고 유훈론적인 인권 개념에 입각하여 입양을 바라보는 소수 목회자의 시각입니다.

선언문은 해외입양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입양당사자와 미래에 해외입양을 통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마저 폄훼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입양이 필요없는 사회의 구현은 국가의 정책제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가정의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입양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입양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해외입양을 부끄러워 하기에 앞서 국내입양조차 제대로 안되는 현실에 안타까워 해야 합니다.

해외입양을 선진국 가정에 아동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 또는 아동송출이라 정의하는 김 모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해외입양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지극히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인 통합교단에서 이런 극소수의 의견을 총회 협회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 주시는 진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요, 목회자요, 교회로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